

다산포럼

버릇없지 않으면 한 세대가 통째 사라질 수도 있다



김재민 철학자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요즘 이십 대 초중반 여성의 패션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네댓 살 간격으로 패션에서 확연한 차이가 느껴진다. 스무 살 전후 여성들, 이른 바 알파 세대는 배꼽을 드러내는 짧은 상의가 도드라진다. 이십 대 중반, 즉 Z세대는 상의를 모아 바지 안에 넣어 허리를 잘록하게 하고 다닌다. 내가 제대로 묘사했는지 모르겠으나, 거리를 걷다 보면 이 차이가 확연하다. 알파 세대는 차별화에 성공했다.

기성세대의 기득권에 대해 말들이 많다.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자. 어떤 세대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놓았던 적이 없다. 기득권의 성체를 부수고 권리의 일정 부분을 쟁취하는 일은 항상 뒷세대의 몫이었다. 이 점에서 예외를 찾기 힘들다.

역사를 통틀어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이 있다. 비슷한 내용이 수

메르 점토판에도 적혀 있다고 한다. 최근 뉴욕 컬럼비아대와 하버드대 연구진은 지난 70년 동안 세계 60개국의 설문 조사를 분석해서, 젊은이들이 과거에 비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인식은 인류사를 관통하는 '오래된 착각'이었다고 '네이처'에 발표했다. 인간의 모든 세대는 다음 세대의 버릇없음을 한탄하지만, 버릇없음이야말로 기득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온 단발마의 외침이었다.

버릇이 있다는 건 기성세대의 기준과 규범을 잘 따른다, 즉 고분고분하다는 뜻이다. 요컨대 자기 세대만의 차별성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기성세대의 자장에 포섭되어 자기 세대만의 고유성이 없게 된다. 전적으로 흡수 통합이다.

눈여겨봐야 할 건, 그 다음 세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세대는 자기만의 버릇없음이 있고, 결국 앞 세대를 치받고 올라오기 마련이다. 김수영은 이어령을 비판하면서 자기 세대를 만들어냈다. '참여문학'과 '순수 문학'이라는 명칭을 발명하면서 차별화에 성공했다. 패션에서 알파세대가 Z세대와 스스로를 차별화한 사례도 한 증거다.

만일 한 세대가 기성세대의 규범 아래 머물며 다음 세대에 의해서 비로소 차별화되면, 그 세대는 역사에서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증발하고 마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는 존속하겠지만, 문화적으로는

존재감을 발휘하지도 남기지도 못할 테니 말이다.

어느덧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입장에서, 아래 세대가 제멋대로 굴고 버릇없어 보이는 것을 반겨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살아있음의 징표일 테니 말이다. 오히려 말을 잘 듣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길게 보면 변종을 낳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이 시대에 많은 변종과 변칙이 생겨나서, 그중에서 다음 시대의 환경에 어울리는 놈이 있게 되면, 생명은 지속한다. 다른 것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명은 다른 것을 포용하는 힘이다.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렇다면 파시즘 같은 '다른 생각'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얼핏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파시즘은 다양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저 또 하나의 '다른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파시즘은 다양성을 억압하고 배제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만이 다양성의 일월일 수 있다.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버릇없지 않은 세대는 자기 소멸로 향한다. 느린 자살이다. 기성세대에게 묻자. 당신은 다음 세대가 느끼게 자살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생명의 약동에 못 이겨 팔쩍팔쩍 튀어 오를길 바라는가? 다만 당신이 살아 있다면, 그건 차별화에 성공한 덕이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청춘 특독

'그릿'이라는 선물



김숙기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2년

중요한 것을 앞두고 한 번쯤은 모든 것을 놓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걸 어떻게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를 의심하고,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했던 순간들과 마주해 본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나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쉽게 무너지 경험들과 마주하며, 무엇이 부딪히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깨닫기 위해 노력했다. '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우연히 '그릿'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태도와 힘' 그것이 '그릿'(Grit)이다. 이 책 속에서도 많은 영감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릿'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에게 주는 큰 깨달음도 대단했다.

21살이 된 지금의 나를 다시 돌아켜 보면서 지금까

지 버티고 견뎌 왔던 다양한 경험과 추억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 10대였던 과거의 나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목표 의식이 분명하여 욕심을 가지고 뭐든 해 보려는 마음가짐이 아주 강했었다.

그런데 대학생 된 20대인 현재의 나는 전혀럼 무언가를 해 보려는 도전 정신의 열정과 끈기가 약해지고 스스로 부끄러울 만큼 의지가 나약한 사람으로 비쳐 보였다. 나의 취약한 부분과 마주하면 직면하는 용기 대신 회피를 택했다.

효율적인 최선의 선택과 열린 사고가 필요로 했던 나에게 선물처럼 '그릿'이라는 책과 마주하게 되어 나에게 대한 강한 확신과 신뢰가 생길 수 있었다. 읽기 전과 읽은 후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고 용기와 지혜를 선사한 책이었다. 지혜를 통해 경험의 통찰과 세상을 배우고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힘,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노력해서 꼭 이뤄내겠다는 깨달음을 선물받았다.

직접 부딪혀 보기도 전에 낙담하고 포기하는 태도가 나의 앞길을 막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러한 믿음의 고리를 깨뜨릴 문제점을 관통하는 해답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중요한 가치이자 강한 무기였다.

실패의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과정이 되고 역설적으로 좌절과 절망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실패의 힘을 발견했다. 상처투성이인 노력의 과정들은 아름답진 않다. 넘어졌던 많은 시간을 견뎌 내며 결국에는 본인의 자신의 힘으로 해내고 일어서는 그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 이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나는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토대가 될 것이며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내일의 행복을 꾸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얽매어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시점인 현실에 초점을 맞춰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사적인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이 없으면, 즉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다. 오늘이 있기에 과거가 있고 오늘이 모여 미래가 된다.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말과 같이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성장한 어른이 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목표 지점을 향해 정장 꼭대기까지 꼭 완주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것이다.

기고

힐링의 시대, 힐링 음악의 시대



장용석 문화기획자

코로나19가 지구촌에 만연한 지 4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힐링 산업의 등장이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폭넓게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된다는 생각이다.

힐링 산업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분야는 '음악(Music)'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음악은 힐링과 치유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욱 중요한 기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K-콘텐츠의 활황이 돋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K-뮤직(music)의 약진이 주목받고 있다. 국악(전통 음악)에 기반해 다른 장르, 다른 나라의 음악과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새로운 음악,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뮤지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날치' '악단광칠' '잠비나이' 등 많은 밴드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야말로 K-뮤직(K-팝이 아닌)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필자는 공연 기획자의 입장에서, 수년 전부터 음악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예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세계 시장에서, 그리고 음악 소비자나 관객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불어 우리 음악 또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음악을 제대로 알리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Didorphin, 감동 호르몬) 호르몬은 인간의 체내에서만 생성되는데 오직 네 가지 경우에만 만들어진다. 첫 번째,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받은 경우, 두 번째,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경우, 세 번째, 진정한 사랑에 빠졌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음악에 감동 받았을 경우다. 음악은 과학과 인간성의 영역이 교묘하게 융합되어진 산물이다. 인간의 귀에 도달하는 과정까지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그 소리가 귀를 거쳐 신경계를 타고 뇌를 통과해 심장에 다다를 때 전혀 새로운 반응이 창조된다. 그것은 바로 공감(Sympathy)이다.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음악'이라 부른다.

그런데,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음악이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음악을 듣는다고 해도 '다이돌핀'이 항상 생성되는 것도 아니다. '좋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건강함과 행복함을 선물받는 것이다. 우리가 축제와 공연장과 음악을 접할 때 느끼는 감동과 행복을 사서 듣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좋은 음악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힐링하며 건강과 행복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분명 좋은 음악은 사람을 살린다. 힐링의 시대에 힐링 음악이 사랑받는 이유일 것이다.

'콘서트 인 북극' 기획 공연은 '한국 음악, 여섯 개의 길로 떠나는 음악 여행' 'Pan & Voice' 공연에 이어, 올해는 '제 3종(種) 음악과의 조우- Beyond(넘어서)' 시리즈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 기획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크로스오버 음악 그룹 세 팀의 공연을 선보이는 무대이다. 이드의 '본능을 넘어서', 고래야 밴드의 '한계를 넘어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9월에는 동양고주파의 '고정 관념을 넘어서' 공연이 준비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ACC월드뮤직페스티벌), 메이플라워 비스킹 페스티벌,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기획해왔다. 그 가운데 오래전부터 우리 음악에 대한 잠재력과

社說

'반도체 특화 단지' 광주·전남을 새 거점으로

광주·전남이 유치전에 나선 정부의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 발표가 임박하면서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반도체 특화 단지 확보에 유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가 이번 주 전국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 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점점지인 광주 첨단 1·3지구에 시스템 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 단지를 조성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특화 단지 유지를 신청한 상태다. 양 시도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풍부한 재생 에너지와 한빛원전 전력 등을 통한 에너지 융합

(Energy Mix) 실현이 가능하고 부지·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이 탄탄하다는 게 골자.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등 생태계 구축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 공모 사업'에서 전남대·전북대 연합 대학이 최종 선정돼 34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 구축과 기업 협업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광주·전남을 배려해야 한다. 첨단 반도체 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산업화에 이어 첨단산업 시대에도 광주·전남은 소외와 침체를 겪고 있다. 산업의 수도권 편중은 광주·전남을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지역으로 전락시키는 등 악순환을 낳고 있다. 정부는 광주·전남 지역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국가 균형 발전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산사태·지하 차도 참사 '강 건너 불' 아니다

하늘이 뚫린 것 같은 '극한 호우'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막심하다. 장마철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속절없이 산이 붕괴돼 집들을 덮쳤고, 불어난 강물에 제방이 무너져 지하 차도가 침수됐다. 무엇보다 너무나 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는 집계가 진행될수록 계속 늘고 있다.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만 여섯 오후 6시 현재 49명에 달한다. 수해로는 1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다. 충북 정주시 오송읍 지하 차도 침수 현장에서는 13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주민들은 재방 관리가 부실했고,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9명이 숨지고 여덟 명이 실종된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방재 시설 부족과 무분별한 개간, 뒤늦은 대피 명령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선 현장의 안일한 대처와 느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인해

(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전남 지역에도 광주 24곳, 전남 20여 곳 등에 지하 차도가 있는데 폭우와 소홀한 산 관리로 침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밤에는 광주 동림동 한 지하 차도에서 운행 중인 버스가 물에 잠겨 시동이 멈추기도 했다.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졌다. 광주·전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황 발령된 상태다. 영산강·섬진강 내 곳곳에는 홍수 특보가 내려졌다.

설상가상으로 장마 전선이 활성화하면서 전남 등 남부 지방에 모래까지 최고 300~400mm의 극한 호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과 감시로 선제적 통제와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극한 호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방재 시스템을 재점검해 최적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퍼스트레이디(First Lady)는 선출직 대통령이나 총리의 부인을 이르는 말이다. 국가수반의 부인으로서 의전과 예우 규정은 있지만 법적으로 어떤 권한이나 의무도 규정되지 않은 자리다. 하지만 퍼스트레이디가 갖는 정치·사회적 역할은 상당하다. 대통령에 대한 사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정권의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숨은 권력'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시대와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절묘한 정부 감각이 요구된다.

단순 내조 역할을 넘어 약자 배려와 사회 통합 등에 적극 나서며 호평을 받았던 퍼스트레이

다. 육 여사는 나환자 등 사회적 약자 돌보기에 나서서 한편, 박정희 대통령에게 민심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는 등 '청와대의 야망' 역할을 하며 민심의 지지를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이 여사도 국민의정부에서 여성부 설립 등에 적극 나서며 한국 여성의 권리를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의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에 나선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어 약자 배려와 사회 통합 등에 적극 나서며 호평을 받았던 퍼스트레이디는 지디들 못했다. 미국 재건의 한 축이었던 엘리너 루스벨트, 여성 인권운동을 주도한 베티 포드, 마약 퇴치 운동에 나선 낸시 레이건, 의료보험 개혁에 나선 미셸 오바마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인한 참혹한 전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올레나 젤렌스카도 세계적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육영수·이후호 여사가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영부인으로 꼽히고 있

현재가 투입된 해외 순방에서 김 여사가 고가 브랜드 쇼핑을 받았던 것만으로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간단치 않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단순해프닝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하지만 정적과 겸손은 퍼스트레이디의 기본 덕목이다. 이는 정권에 대한 민심의 신뢰로 이어진다. 김 여사가 명품 쇼핑 논란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히고 성찰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이사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other publication details.